



힘찬 총성과 함께 출발~

제44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기념 마라톤·건강걷기대회가 열린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걷기대회 참가자들이 경쟁보다는 함께 걷는다는 하나된 마음으로 스타트 총성과 함께 출발선을 나서고 있다. /나평주기자 mjna@kwangju.co.kr

### “가을 가족잔치, 우리도 한 몫 했어요”

4.5km건강걷기 도전 ‘꼬마 속녀’  
신효원·지원, 김은우·은주 자매

화창한 가을 날씨속에 열린 제 44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기념 마라톤 및 건강 걷기 대회는 온 가족이 함께한 ‘건강 한 마당’이 됐다.  
광주첨단마라톤클럽소속의 꼬마 속녀 들도 4.5km 걷기에 도전장을 내 어른들의 눈길을 끌었다. 휴일 늦잠도 잊고 엄마-아빠 손을 잡고 경기장에 나온 4살배기 신효원과 지원(6)자매, 김은우(5)·은주(6) 두 자매가 그 주인공이다.  
마라톤을 하는 엄마-아빠를 따라 클럽 모임에 다니다 보니 자연히 마라톤과 익숙해진 꼬마속녀들에게 걷기는 즐거운 놀이다.

두 자매의 아빠 신유진(36)씨는 “반 늦게까지 일을 하느라 아이들하고 자주 놀아주지 못하는데, 대회에 나오면 하루 내내 함께 할 수 있다보니 아이들이 대회에 나가는 것을 좋아한다”며 “오늘도 아이들이 먼저 일어나 기다렸다”고 말했다.  
은우·은주 자매도 모처럼 가족 나들이를 즐겼다. 하프 코스에 출전한 아빠 김기홍(36)씨는 팀의 훈련 코치로 활동하고 있는 마라톤 마니아. 엄마 이승원(35)씨도 아이들과 함께 걷기를 하면서 가을의 정취를 만끽했다.  
대회시작 전부터 부지런히 경기장을 누비던 4명의 꼬마 속녀들은 힘찬 발걸음으로 결승선에 들어서면서 완주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20일 오전 월드컵 경기장 주변에서 열린 제44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기념 마라톤 건강걷기대회에 참가한 꼬마 참가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왼쪽부터) 김은우(5)·신지원(6)·김은주(6)·신효원(4). /최현배기자 choi@

## ‘기능인 존중’ 되새긴 흥겨운 건강축제

본사 주최 기능대회기념 마라톤·건강걷기대회 성료  
장성연·이정숙씨 하프코스 남녀부 각각 우승 영예

제44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기념 마라톤·건강걷기대회가 5천여명의 동호인·시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대회에서 장성연·이정숙씨가 하프코스(21.0975km) 남녀부 우승을 각각 차지했다.  
장성연씨는 20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출발한 대회 하프코스에서 1시간16분43초

를 기록, 남자부에서 맨 처음 끝낸 테이프를 끊었다. 김수용씨는 1시간16분54초로 2위, 이재식씨는 1시간18분46초로 3위를 각각 기록했다.  
여자부에서는 이정숙씨가 1시간28분15초로 가장 빨리 달려 우승 트로피를 받았다. 이정미씨는 1시간31분에 들어와 2위, 송미숙씨는 1시간34분29초로 3위를 기록했다.

완연한 초가를 날씨에 열린 이번 대회는 직장·동호인·가족·친구들끼리 참가한 팀들에게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는 시간이 되기도 했다.  
노동부·광주시·광주시교육청 주최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하프코스(21.0975km)와 건강걷기(4.5km) 두 종목으로 진행됐다.  
특히 걷기종목(4.5km)에서는 가족단위 참가자들이 많아 마치 가을 가족축제 한마당 잔치를 방불케 했다.  
노동부·광주시·광주시교육청 주최로 열린 이번 대회는 전국기능경기대회(22~28일)를 앞두고 광주일보사가 기능인력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최근 신종플루에 대한 예방 대책으로 대회장의 모든 출입구와 트랙 곳곳에 위생시설을 설치했으며 또 분부석 메인부스를 비롯한 4곳의 메디칼 부스에 전문의를 포함한 의료인력이 배치돼 안전하고 깨끗한 위생만점 대회로 평가받았다.  
또 이번 대회에서는 참가자에게 주어지는 기념품도 풍성했다.  
하프코스의 경우 1위 상금 40만원·상장·트로피, 2위 상금 30만원·상장·트로피, 3위 상금 20만원·상장·트로피가 각각 주어졌다. 또한 4위부터 44위까지는 상장과 부상품이 지급됐다. 하프코스 30명·걷기 70명에겐 행운상이 주어졌다. /서승원기자 swseo@

### ■ 부문별 우승자 인터뷰

#### “마라톤으로 건강 챙기고 자신감도 얻어”

하프코스 남 장성연씨

“자랑스런 아빠가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부산 사나이” 장성연(34)씨가 하프코스 남자 부문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해 3·1 전국 마라톤대회 10km 준우승에 머물렀던 장 씨는 이번 대회 하프코스에서 당당히 우승을 차지하며 지난해의 아쉬움을 달랬다.  
부산 현대마라톤 동호회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는 장 씨는 이번 대회를 통해 광주를 살펴 볼 수 있는 기회도 얻었다.  
장 씨는 “대회 전날 출발해 지인들과 관광을 하며 광주를 조금이나마 더 잘 알게 됐다”며 “컨디션이 좋지는 못했지만 위기였던 마지막 오르막 코스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우승 소감을 밝혔다.  
마라톤에 입문한 것은 2년 전. 체중 조절을 위해 뒤통에 마라톤에 입문했지만 장 씨는 각종 대회에 참가하면서 실력을 쌓아가고 있다. 자신의 능력을 시험하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는 등 마라톤을 통해 많은 걸 배우고 있다.



장 씨는 “마라톤을 통해 건강도 좋아졌고, 두 팔뚝에게도 자랑스러운 아빠가 됐다”고 말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광주와 인연 각별...완주 목표로 뛰었다”

하프코스 여 이정숙씨

“제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해 기분이 좋습니다.”  
올해 3·1 전국마라톤대회 하프코스 여자 부문 정상에 올랐던 이정숙(44·충남 천안)씨가 다시 한 번 정상에 올랐다. 마라톤 국가대표 출신의 육상지도자인 이씨는 국내 마라톤계에서는 이름이 알려진 실력과 선수다. 이 씨는 2008년 3·1 마라톤 대회에서도 우승을 차지하는 등 광주와의 남다른 인연을 자랑하고 있다.  
이 씨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광주에 오느라 몸은 피곤하지만 좋은 코스에서 질주를 할 수 있었다”며 “이번 우승으로 광주와의 인연이 더욱 각별해진 것 같다”고 우승 소감을 밝혔다.  
각종 대회 우승을 휩쓸고 있는 이 씨지만 이번 우승은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다. 감기를 심하게 앓아 2주 가량 고생을 하느라 정상 컨디션이 아닌 상황에서 출전을 감행한 것이다.  
이 씨는 “몸이 너무 좋지 않아서 임상보다는 완주를 목표로 스타트를 끊었는데 우승을 차지하게 됐다”며 “비록 좋은 기록



으로 1위를 하지는 못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 만큼 더욱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나이는 숫자일 뿐” 79세 기용섭옹 노익장 과시

#### ■ 이모저모

○이번 대회 참가자 중 최고령은 걷기종목에 출전한 79세의 기용섭(남구 진월동·에스원 호남본부 고문 사진) 옹.



연륜인 출신으로 중학교 때부터 마라톤을 시작한 기용섭 옹은 “이번 대회를 통해 건강 상태를 몸으로 직접 느껴 보고 싶어 참가했다”면서 “처음으로 출전한 대회인 만큼 옛 선수시절처럼 설레인다”고 소감.

지금도 매일 1시간씩 걷기운동을 하면서 나이에 비해 탄탄한 몸매를 유지하고 있는 기용섭 옹은 “마음을 비우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주변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게 정신건강 뿐만 아니라 신체건강에도 좋은 약이라 생각한다”며 자신만의 건강비법을 소개.

#### 개미들의 질주? 시선 집중

○하프 마라톤에 참가한 중년 남성들 중 유독 ‘58년 개미 마라톤 클럽’ 멤버들에게 참가자와 시민들의 시선이 집중.  
광주지역에 거주하는 1958년 개미에 태어

난 남성들이 가입한 마라톤 클럽인 ‘58년 개미 마라톤 클럽’멤버들은, 주먹만한 클럽 명칭을 새겨 넣은 상의를 입고 경기시작 수습분 전부터 트랙을 종횡무진.  
마라톤 클럽 멤버 조충현(51)씨는 “동년배 10여명과 함께 가을 정취를 만끽하며 부담없이 뛴다”이라며 “하지만 58년 개미들의 명예(?)가 걸린 만큼 하프 마라톤에서도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보여줄 것”이라고 대회에 임하는 소감을 피력.

#### “안전 대회” 교통경찰에 박수

○“교통 통제 등 참가자들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마라톤에 경찰관의 도움이 절실한 가운데 동료 경찰과 달리(?) 반바지에 반소매 옷을 입고 하프 마라톤에 출전한 ‘광주 북부경찰서 마라톤 클럽’소속 경찰관들이 눈길.

6년 이상 마라톤을 해왔다는 동부경찰서 수사과 김창권 경위는 “앞으로도 꾸준히 마라톤 대회에 참가해 치안 유지 뿐만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하는 경찰의 모습도 보여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피력.

한편, 땀방아에서 마라톤과 걷기 코스에 참가한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교통질서 유지에 힘써준 광주경찰에 참가자는 물론 지켜보는 시민들도 박수.

/서승원·김형호기자 swseo@



기관·단체장들의 힘찬 격려

이 경기 직전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개회식에 참가한 박광태 광주시장·안순일 광주시교육감·이용섭 조영택 의원·유제철 광주일보사장 등 내빈들이



땀 흘린 팔다리 근육 시원하게

고 있다.

이번 대회 자원봉사자로 나선 동신대 생활체육학과 학생들이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스포츠 마사지를 해주



밸리댄스로 흥 돋우고

펼치고 있다.

개회식 식전행사에서 오성자 밸리댄스팀이 화려한 연기를